

한국전쟁 30년 만에 던진 '인간 화해' 메시지

1919년 10월27일 '의리극 구토' 이후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는 수많은 걸작을 선사해 왔다. 대중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안겨준 대표적 작품들이 여기 있다. 창간 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 제작자,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문가에게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을 꼽아 달라고 요청해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 이를 시대순으로 소개한다.

빨치산 짜코와 토벌대 송기열 이념 갈등과 대립 넘어선 우정 시대 관통한 임감독의 대표작



영화 '짜코'

사진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어두컴컴한 밤, 골목길로 경찰차가 들어선다. 구석진 모퉁이에 남루한 차림으로 누운 초로의 남자. 갈 곳 없다는 그를 경찰은 갱생원으로 이끌고, 남자는 그곳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짝코를 만난다.

남자의 이름은 송기열(최윤석).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대원이었던 그는 악명 높은 빨치산 대장 짜코(김희라)를 붙잡아 호송하던 중 놓치고, 일부러 풀어줬다

는 누명을 쓴 채 30년간 짜코를 쫓았다. 긴 세월 두 남자의 삶은 스산했다. 송기열의 아내는 스스로 생을 끊고, 그의 삶도 파헤쳐졌다. 짜코 역시 도망자로 살아왔다. 함께 병까지 깊어지자 이들은 갱생원을 탈출하고, "고향으로 가서 억울함을 구명하자"는 송기열의 손에 이끌려 기차에 오른다. 인생의 마지막 길, 짜코는 송기열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는다.

임권택 감독의 1980년작 '짜코'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남자가 한국전쟁의 한 복판에서 비극적으로 만난 뒤 일상에 걸쳐 벌인 추격과 도피의 이야기다. 이들은 전후 격랑의 시간을 보내며 4·19와 5·16 등 굴곡진 시절을 통과한다. 감독은 이들과 시대적 변곡점을 통해 이념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인간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다.

'짜코'는 '만다라' '아재이제 바라아제' '서편제' 등과 함께 임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작품을 통해 시대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감독의 도전은 후배 영화인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과 힘이 됐다. 강제규 감독은 "1980년대 이후 긴 시간 웰메이드 영화를 통해 후배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영화평론가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 시대성까지 예민하게 포착해온 작품들의 다양성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해리 기자 g011024@donga.com

임권택 감독-송길한 작가의 첫 번째 동행

영화 '짜코'에 얽힌 이야기들

●1980년, 한국영화 한국영상자료원에 따르면 "1981년 기준 한국영화는 연간 제작편수 100편 내외"에 "20개 등록 영화사가 의무적으로

각 4편 이상 만들도록" 정했다. 한국 영화를 일정 편수 이상 제작해야 외화 수입 권한을 부여했던 시대였다. 당시 '바람 불어 좋은 날' 등을 내놓은 이장호 감독은 "한국영화는 되도록 짧게, 빨리 만드는 게 중요했다. 잘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돌아왔다.

●김희라와 임권택 감독 주인공 짜코 역 김희라는 임권택 감독을 "연기 스승"으로 모신다. 김희라가 '마부' 등의 주역이자 부친인 고 김승호의 뒤를 이어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임 감독의 '강한 권유' 때문이다.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희라는 "임 감독이 196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날 끌고 가 연기를 시켰다"고 돌아왔다. 김희라는 그 이듬해 '독짓는 늙은이'로 데뷔했다.

●송길한 작가-임권택 감독, '영화 동지' '짜코'의 탄생 배경에는 임 감독과 뜻을 함께하며 시나리오를 쓴 송길한 작가의 역할도 컸다. 엄혹한 시대적 분위기를 딛고 나서려는 이들의 작업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1981년 '만다라', 1983년 '안개마을', 1986년 '길소뜸'을 거쳐 임 감독의 101번째 연출작 '달빛 길어올리기'로 이어졌다.

이해리 기자

#해시태그 킷



진짜 가족같은 '런닝맨'들

그야말로 '찰떡 호흡'이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의 주역인 가수 김중국, 배우 이광수, 전소민, 방송인 양세찬이 화기애애한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서로를 속 빼달라는 해맑은 웃음으로 시선을 잡아끈다. 이광수와 양세찬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고 한 듯 손가락으로 '브이(V)' 포즈를 취해 '형제 케미스트리'를 발산한다. 이들의 팀워크가 고스란히 담긴 모습에 팬들은 "여전히 사이 좋네" "진짜 가족사진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런닝맨 #가족사진 #정답달아가네

'슈주' 규현 소집 해제 솔로가수로 컴백한다

tvN '강식당2' 등 방송 활동도 박차



규현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이 솔로가수로 컴백한다. 7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된 규현은 이달 말 음반을 내고 솔로가수로 무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집 해제 직후 신

곡 작업을 시작한다. 이미 상반기 활동 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어 우선순위로 가수 활동부터 준비한다. 신곡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해 정규앨범이 아닌 미니음반이나 디지털 싱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현은 틈틈이 방송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임대 전 뛰어난 입담과 감각을 내세워 각종 예능프로그램의 MC로도 활약해 현재 각 방송사의 대표 예능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받고 있다. 방송사마다 새 예능프로그램이 줄고 있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또래 남성 연예인들이 활동을 멈추면서 규현에 대한 러브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다만 임대 전 고정 MC로 출연했던 MBC '라디오스타'는 최근 제작진과 합의해 출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tvN '강식당2'(스포츠동아 4월12일자 단독보도)와 '신서유기' 시즌7 등에는 출연하기로 했다. 현재 녹화 중인 '강식당2'에 조만간 합류해 강효동, 은지원 등 기존 멤버들과 조우한다.

하반기에는 슈퍼주니어 완전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막내 멤버인 규현이 활동 복귀하면서 11명 전원이 군 복무를 마무리하게 됐다. 멤버수가 많아 군 복무로 인한 공백은 장장 10년에 걸쳐 이어져왔다. 7일 리더 이득은 SNS를 통해 "규현이 고생했다"면서 "모두 군대 해결! 2019년 슈퍼주니어 컴백!"이라는 글을 올려 규현의 소집 해제를 반겼다.

한편 규현은 19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팬미팅 '다시 만나는 오늘'을 열고 오래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편집 | 김형주-김대건 기자



정해인, 홍종현, 김영광, 안효섭(왼쪽부터)

스포츠동아 DB

'봄밤' 정해인 볼까, '절대 그이' 홍종현 볼까

드라마 로맨스 킹 놓고 맞대결 김영광·안효섭도 여심 흔들어

연기자 정해인과 김영광, 홍종현, 안효섭이 '로맨스 킹' 자리를 놓고 4파전을 벌인다. 저마다 다른 매력과 개성으로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자극해 이들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로맨스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서면서 안방극장의 온도도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주인공은 김영광과 안효섭이다. 6일 나란히 첫 방송한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와 tvN '어비스'를 통해 서로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뒤 이어 홍종현과 정해인이 바통을 받는다. 이들은 15일 방송을 시작하는 SBS '절대 그이'와 22일 방송 예정인 MBC '봄밤'으로 각각 시청자를 찾는다. 홍종현은 카리스마 뒤에 여러 속마음을 지

닌 톱스타 역으로, 정해인은 지난해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이어 '봄밤'에서도 따뜻하고 다정한 캐릭터를 맡는다.

이들 네 배우의 활약 덕분에 한동안 '가뭄'이다시피 했던 로맨스 드라마도 이달에만 네 편이나 차례로 공개된다. 누가 먼저 '로맨스 킹'으로 우뚝 설지도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상대역인 여배우들과의 호흡 역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먼저 작품을 공개한 김영광은 진기주와 '티격태격 로맨스'의 정석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효섭은 로맨스 장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박보영과 만나 출발부터 상당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뒤 이어 홍종현은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방민아, 정해인은 배우 한지민과 각각 만나 색다른 로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200억 드라마 '이몽' 시작부터 잠음...왜?

"월북자 미화" vs "항일 재평가" 약산 김원봉 둘러싼 해석 논란

MBC 주말드라마 '이몽'이 방송 초반부터 시청자로부터 극과 극 반응을 얻고 있다. 드라마 주인공인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분분한 탓이다. "김원봉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이라는 제작진의 항변에도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몽'은 MBC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드라마다. 제작비만 200억 원을 투입해 100% 사전 제작된 작품이라 눈길을 모았다. 연기자 유지태, 이요원 등이 독립투사를 맡아 일제강점기 혼돈의 역사를 그린다.

기대 속에서 4일 첫 방송한 드라마는 작품 자체보다 유지태가 연기하는 주인공 김원봉을 둘러싼 논란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시청자의 반응이 "김원봉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정치적 이념을 떠나 김원봉의 항일 투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시선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다.

김원봉은 1919년 일제 수탈에 맞서 의열단을 조직한 독립운동가다. 1938년 조선의용대장,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 등을 지낸 그는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후대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유지태가 연기하는 MBC '이몽'의 김원봉.

물론 김원봉은 간간히 일제강점기 배경의 작품에 짧게 등장해왔다. 1200만 흥행 영화인 '암살'에서는 배우 조승우가 맡았고, '밀정'에서는 이병헌이 김원봉을 빗댄 의열단장 정채산을 연기하기도 했다. 다만 특별출연에 해당하는 짧은 출연에 불과했던 이들 영화와 달리 드라마 '이몽'은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운 첫 작품이다. 때문에 실존인물을 둘러싼 여러 해석과 평가의 과제를 드라마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더해 3월26일 국가보훈처에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을 제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청자의 갑론을박은 증폭되고 있다.

사실 이런 논란의 여지는 방송 전부터 '이몽'이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돼왔다. 제작진은 이에 역사 왜곡 및 미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독립 투쟁 그 자체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유지태 역시 2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극 중 김원봉은 의열단장의 상징성을 가져왔고 실존인물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